

“이웃에게 받은 도움, 나눔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김영희 ‘본향 계절한정식’ 대표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어요. 저도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영희(61·사진) ‘본향 계절한정식’ 대표는 나눔을 시작한 계기를 이같이 말했다.

2023년 광주 조리 분야 명장 선정
명절 떡갈비·삼계탕 취약계층 나눔
주민 요리교실 등 재능기부 이어가
전통음식 연구·후배 양성에도 힘써

회사 조리부에서 요리를 접한 그는 식당을 운영하며 전통음식과 궁중요리를 공부했고, 2015년 한정식집 본향을 열었다.
김 대표는 “우리 음식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고 계승해보고 싶어 한정식을 시작했다”며 “개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반찬 나눔과 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에는 지역 취약계층에 8차례에 걸쳐 480만원 상당의 떡갈비를 나눴고, 지난해와 올해 복날에는 두 차례에 걸쳐 72만원 상당의 삼계탕을 후원했다.
주민 대상 요리교실에도 재능기부 강사로 참여하며 조리 경험과 기술을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요리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복지관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해주시니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저도 기쁘다”고 밝혔다.
식당 운영과 나눔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배움을 놓지 않았다. 2017년에는 남부대 호텔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호남대 대학원에서 외식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광주대와 남부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고등학생 대상 진로 특강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요리는 오늘 배워서 한 번 만들어봤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보고 이

론도 공부하며 연구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새롭게 배운 것을 요리에 활용해 손님상에 내면 손님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많이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대표는 2023년 광주광역시 조리 분야 명장에 선정됐다.
광주 명장은 같은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인 가운데 기술 수준과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광주시가 선정하며 조리 분야 명장은 안우성 명장을 포함해 2명뿐이다.
김 대표는 “한식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식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며 “내가 음식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음식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통음식을 연구하며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전하겠다”며 “혼자 계산 어른들에게는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요리를 가르쳐드리며 나눔과 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상기자

‘제3회 광산세계야시장’ 4만5천여명 구름 인파

11개국 퍼레이드·세계 음식 등 다채
상가 연계 상생쿠폰 도입 매출 견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동 골목이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맛과 멋, 그리고 흥겨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월곡동 목련로 일원에서 열린 제3회 광산세계야시장에 4만5천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의 백미는 11개국 공동체 228명이 참여한 전통의상 퍼레이드로 한국, 중국, 인도, 우즈베

키스탄 등 각국 참가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뽐냈으며 아프리카 타악밴드 등 전문 공연팀이 거리의 흥을 돋웠다.
세계 각국 이색 음식과 디저트를 선보인 먹거리 부스와 고려인 마을장터는 밀려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올해 야시장은 축제 즐거움을 골목상권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광산구는 방문객의 발길을 마을 전체로 유도하기 위해 행사장 인근 138개 상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천원 상생쿠폰’을 발행했다.
더불어 스탬프 투어를 월곡1동 마을축제 월곡놀장 및 고려인마을 문화공간 등과 연계해 소



비와 문화 교류가 행사장을 넘어 마을 곳곳에서 이뤄지도록 기획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다양한 문화를 엿보는

것을 넘어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진정한 이웃이 되는 화합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육근기자



담양 ‘촌담 참숯불꾸이꾸이’, 취약계층 닭곰탕 나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은 6일 “최근 촌담 참숯불꾸이꾸이가 담양읍 취약계층을 위해 닭곰탕을 후원하며 이웃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안부 살피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촌담 참숯불꾸이꾸이의 후원으로 닭곰탕을 전달하며 대상 가구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윤기동 촌담 참숯불꾸이꾸이 대표는 “준비한 한 끼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종원 담양읍장은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한 촌담 참숯불꾸이꾸이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나눔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전남여성가족재단, 페어패밀리 2기 소모임 개최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6일 “최근 나주시가족센터와 공동으로 ‘2026 슬기로운 가정생활, 페어패밀리 2기’ 소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모임은 지난 100일 동안 가사·돌봄 역할카드 활용과 주간미션 등을 실천해 온 양육자와 자녀 등 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의 경험을 돌아보고, 가족의 일상에 나타난 변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100일간의 미션 수행 후기’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 ▲힘

들었거나 실패했던 순간 ▲주간미션 후기 ▲100일 전의 나와 배우자에게 전하는 한마디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을 나눴다.
재단은 오는 11월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100일간의 변화와 실천 사례를 전남광주 특별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올해 개발된 표준 매뉴얼을 토대로 2027년에는 광주를 포함한 전남광주 27개 시·구·군 가족센터로 사업을 확대해, 통합특별시민 모두가 제정하는 평등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세계호남향우회, 5·18장학금 1천만원 기탁

5·18기념재단은 6일 “최근 세계호남향우회가 ‘세계 호남인의 날(4일)’을 앞두고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세계 각지의 호남 향우들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미래세대와 나누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 전달 당일 회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묘비를 닦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동수 세계호남향우회장은 “5·18장학금 후

원은 전 세계 호남 향우들이 5·18의 정신을 잊지 않고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는 자랑스러운 실천”이라고 전했다.
운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전달해주신 뜻깊은 기금은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장학사업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호남향우회는 지난 2019년 30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00만원을 후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매년 1천만원으로 규모를 늘려 후원하고 있다. /이연상기자

최원식 목포해경서장, 취약 항포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최원식 서장이 최근 임자도 일원을 찾아 도서지역 해양사고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취약 항포구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임자출장소와 전장포 선착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고 대비 태세와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대광해수욕장을 찾아 폐장 이후 연안 해역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하유리항 인근에서는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상태와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며 철저한 현장 관리를 지시했다.
목포해경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지역 사고 대응 태세를 갖추고 취약 항포구에 대한 상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원식 목포해경서장은 “도서지역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강영일 제64대 전남우정청장 취임



전남지방우정청은 제64대 강영일(사진)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기술고시(3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강영일 신임 청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조정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장·금융총괄과장·우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폭넓은 행정 경험과 우정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강영일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정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원 간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노사 간 신뢰와 상생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전남지방우정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태호기자

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장급(2급)전보
▲광역행정본부장 박남언
▲전남연구원 파견 주순선
◇국장급(3급)전보
▲자치분권국장 조석훈 ▲전남인재개발원장 김정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유현호 ▲목포시 부시장 강종철 ▲광양시 부시장 이상용 ▲서구 부구청장 최경화
◇과장급(4급)전보
▲종무실장 강하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정창모·노영환·김세연·장판석 ▲전남영커센터 파견 김준철 ▲장흥군 부군수 김현미 ▲강진군 부군수 강성일 ▲함평군 부군수 장영철 ▲영광군 부군수 박근식 ▲완도군 부군수 최병남 ▲주백건축국 주백정책과장 곽춘섭 ▲에너지산업본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과장 백경동 ▲국가AI검퓨터센터 프로젝트추진단 운영지원과장 김태곤 ▲한국농어촌공사 파견 최용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범우 ▲곡성군 부군수 문미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4급 승진
▲총무담당관실 이정석 ▲홍보담당관실 장관호
◇5급 승진
▲총무담당관실 김병진 ▲의정담당관실 김형태 ▲도로교통전문위원 박수영 ▲의정담당관실 조준민

결혼

▲윤재식(前 담양중앙파출소장)·이애란씨 차남 부현균, 여민우·임미옥씨 장녀 아현양=10월9일(금) 오후 2시30분 송도 메리빌리아 셀레스테리(인천시 연수구 송도파라솔 16번길 33-1), 032-864-5500·010-3307-4479.
▲故 최지현·김덕임씨 아들 청현(담양농협 추성로지점 계장군, 임흥준(前 담양군 산림정원과장)·조완금씨 딸 진희(담양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근무)양=10월11일(일) 오후 12시30분 광주드래프트빌 2층 CN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062-228-0000·010-2627-6308.

“우리 결혼합니다”



▲서동교(주식회사 팡죽 대표이사)·박경옥씨 장녀 서영주(주식회사 팡죽 실장)양, 신단식·이미령씨 장남 신수호군=10월17일(토) 낮 12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010-2923-2388(서동교)